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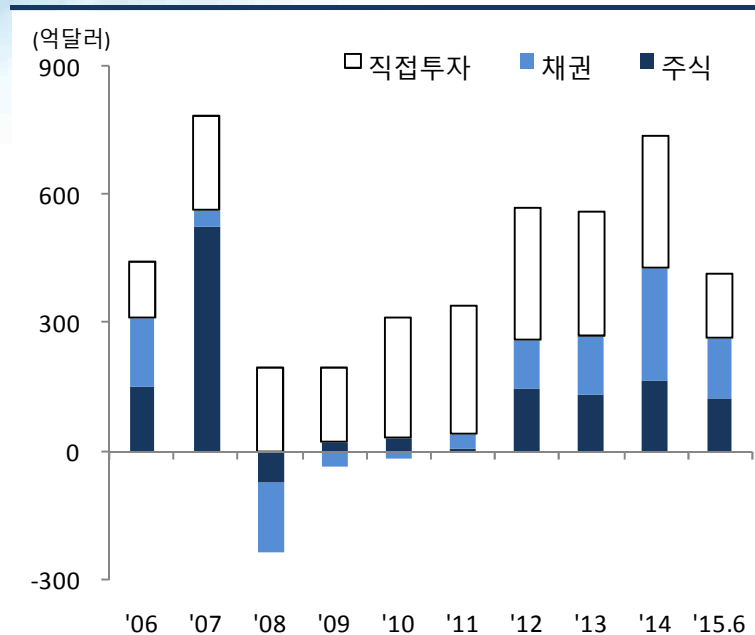
해외투자자와 통화파생상품

2015. 9. 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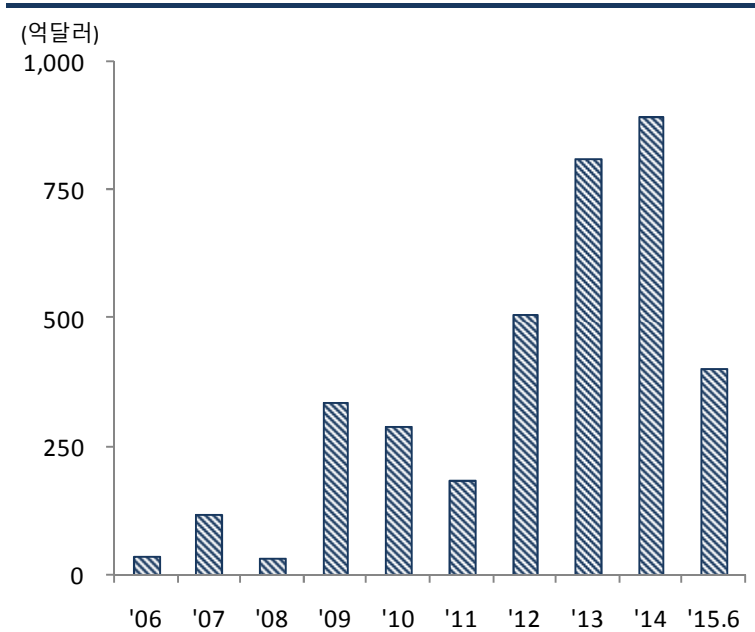
삼성선물 리서치센터장 정미영

해외 증권투자 전성시대

해외투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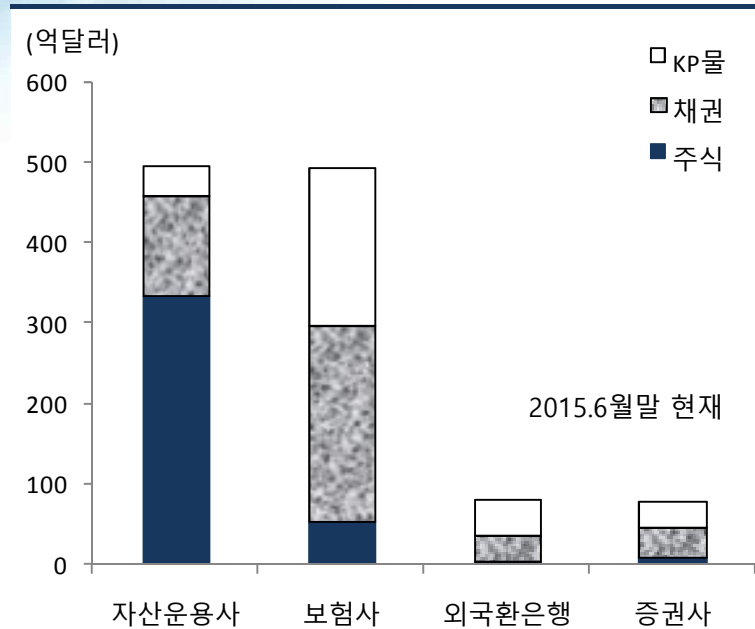
경상수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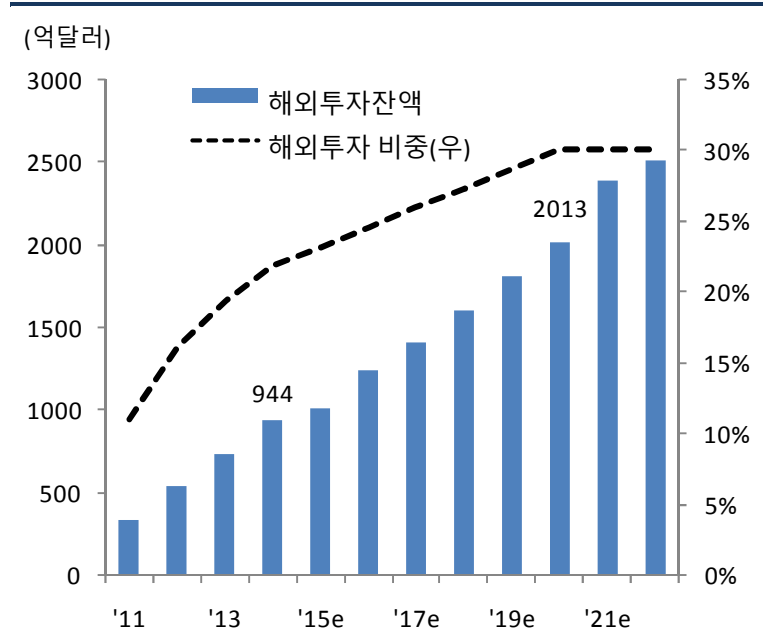
- 직접투자는 '07년부터 급증, 증권투자는 '12년부터 증가세 재개
- 증권투자 재개는 대규모 경상흑자, 국내자산 급증, 저금리 기조 안착의 결과
- '15.6월말 '해외투자 활성화 방안'으로 증권투자 증가세 가속화될 듯

해외 증권투자 전성시대

기관투자가의 해외자산 보유 내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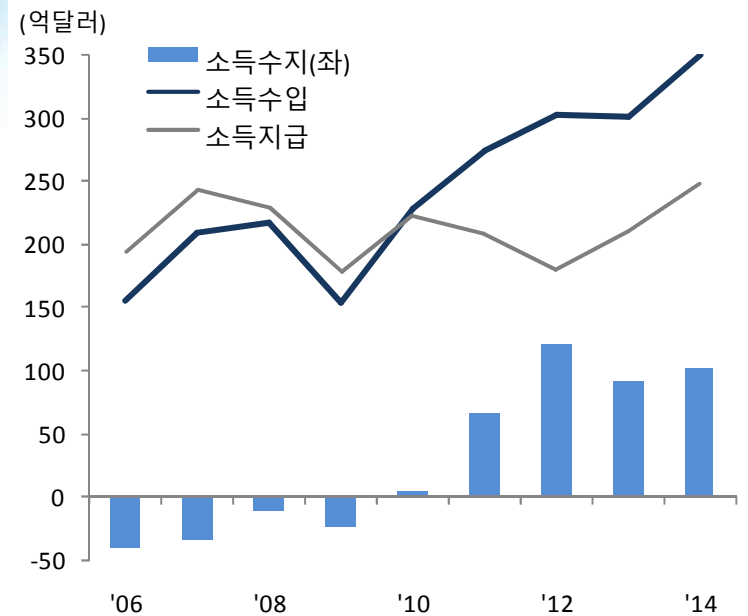
국민연금 해외투자잔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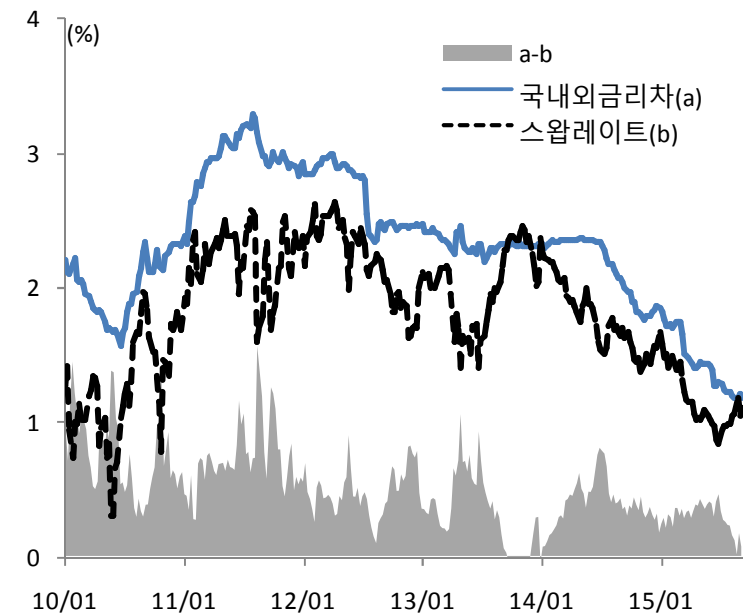
- 자산운용사는 주식 중심(약 68%), 보험사는 채권 중심(약 90%) 투자
- 국민연금 등 기금운용의 자산 급증 및 해외투자 비중 확대
 - ✓ 국민연금, 2020년까지 해외투자 비중 30% 이상으로 확대('14년말 21.9%)

해외 투자 확대의 함의

소득수지 흑자 전환



스왑 레이트 ; 금리 차 하회(3개월)



- 외환수급 불균형 개선 및 안정적 경상흑자 지속
- 위기시 외화자금 공급 역할
- 선물환 가격 왜곡 가능성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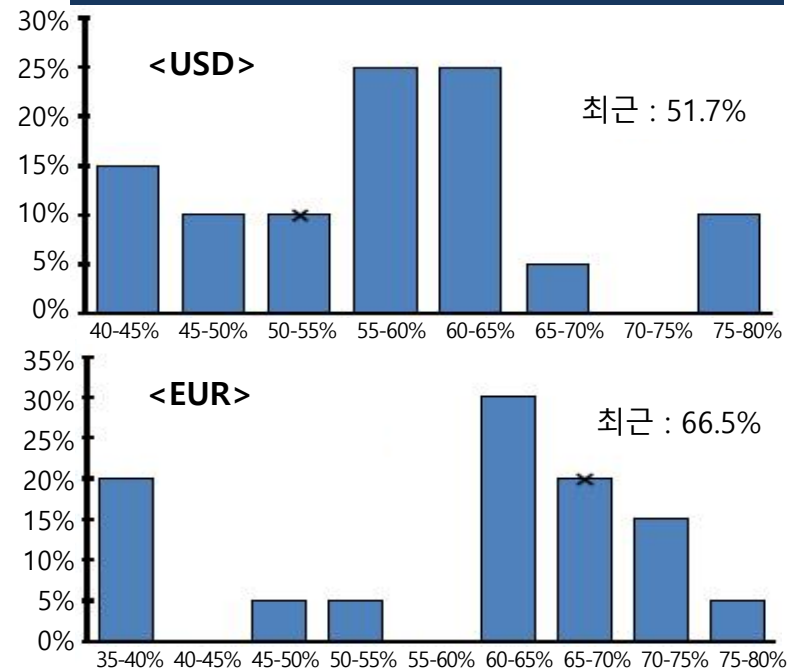
금융기관, 환노출 비중 높아질 듯

주요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 현황

	국민연금 (\$944억)	보험사 (\$494억)	자산운용사 (\$498억)
해외자산 포트폴리오	주식 55.2% 채권 21.0% 대체투자 23.9%	주식 10.8% 채권 49.3% KP물 39.9%	주식 67.5% 채권 24.8% KP물 7.7%
환헤지 현황	채권 100%, 주식/대체투자 0%('14년~)	채권 및 KP물 100%, 주식도 고헤지 비율 추정	보유 해외증권 자산의 약 85%

※ 국민연금 14년말, 보험/자산운용사 ~15.2Q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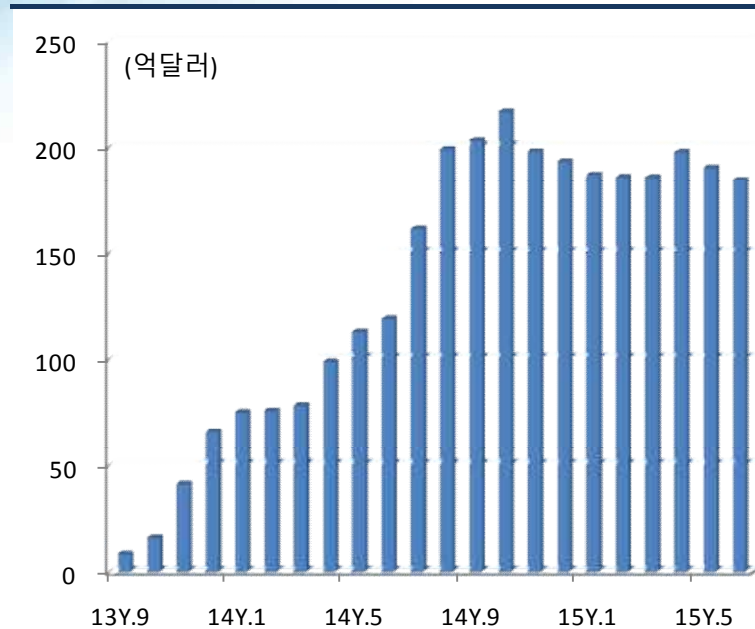
일본 생보사, 과거 10년간 헤지비율 분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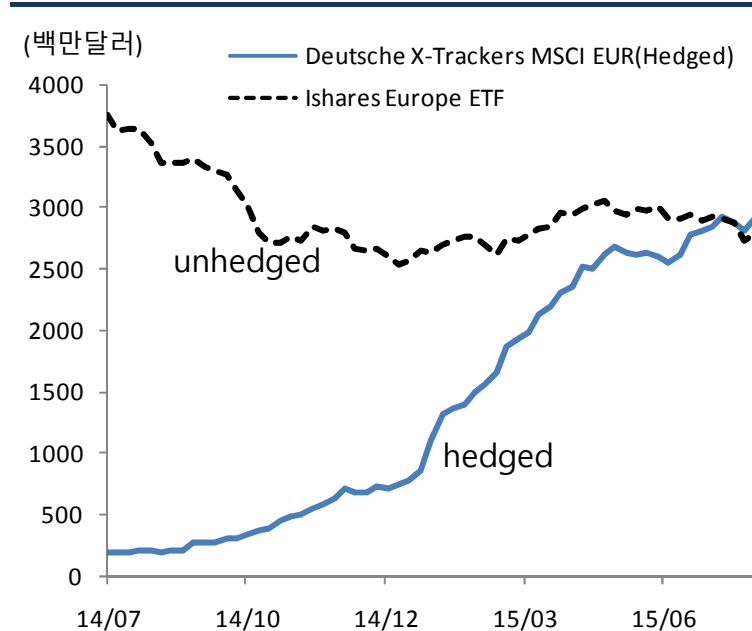
- 해외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
- 초기 높은 환헤지 비율 → 환노출 비중 증가 전망 : 환헤지 수익률 악화, 자산 상관관계 등
- 포트폴리오 투자와 환관리의 이원화 필요

외환 파생상품의 발전 방향과 과제

위안화 예금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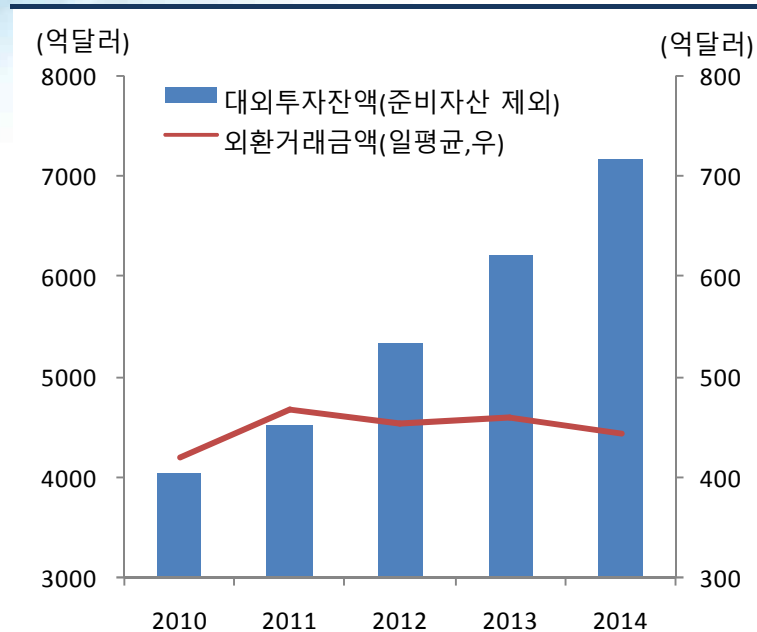
유럽주식 ETF : FX Hedged or No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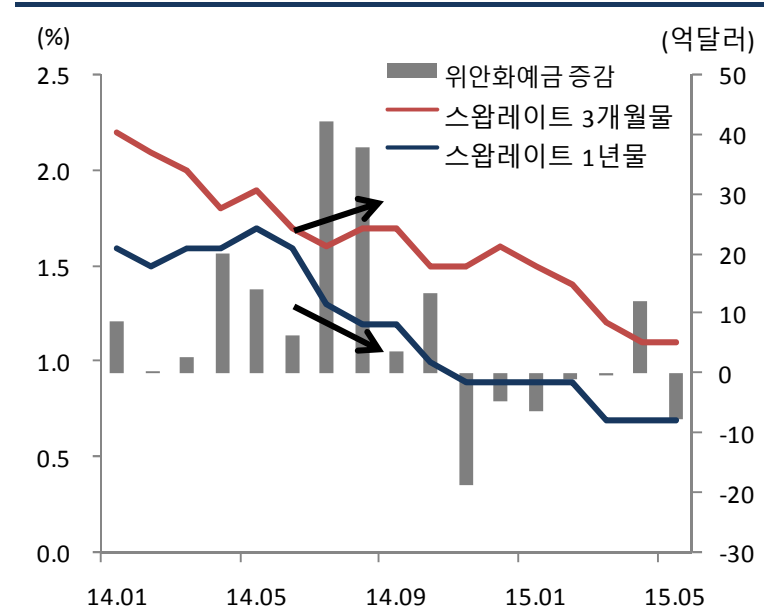
- 환율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구조화 상품의 한계 : 상대적 낮은 변동성/기대 수익률
- 외환차익거래 형태 또는 환헤지 비율 조절을 통한 수익률 차별화
- 자산/투자지역 포트폴리오 다변화 + 외환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발전 예상

외환 파생상품의 발전 방향과 과제

대외투자 잔액과 외환시장 규모



외환 스왑레이트



- 급증하는 자본시장 Flow를 소화해 낼 수 있는가? ⇒ 시장참여자 확대
- 외화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, 금리기간 구조의 왜곡 등 야기 ⇒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
- 환율 embedded 상품의 리스크, 對고객 고지 강화